

350년 된 매화 '대흥매' 만개...해남 천년고찰 대흥사

초의선사가 사랑했다 해 '초의매'로 불려 1811년 천불전 화재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땅끝해남의 천년고찰 대흥사의 고매(古梅)가 환하게 피었다. 해남군은 대흥사 적목당 앞 대흥매(大興梅)가 일제히 꽃망울을 터트리며 산사를 은은한 향기로 가득 채우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대흥매는 수령 350년가량으로 추정되는 백매화 나무로 초의선사가 특히 사랑했다 하여 '초의매'라고도 불린다. 다성(茶聖) 초의선사(1786~1866)는 대흥사 13대 종사로 선다일여(禪茶一如) 사상을 주창하며 조선 후기 차 문화의 중흥을 이끌었다. 당시 직접 창건한 대광명전(동국선원)에

거처하던 초의선사는 1811년 일어난 천불전 화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매화나무를 대광명전 옆 적목당으로 옮기고 아껴 보살폈다. 지금에 이른 대흥매는 어른 한아름 크기의 고목으로 기품을 뽐내고 있다. 매년 봄이면 환한 꽃등을 달고, 천년고찰에 빛을 밝히고 있다. 천기철 사진가는 "대흥매는 특히 향기가 짙고, 꽃이 눈부실만큼 새하얀 빛을 띠고 있어 호남 5매로 꼽는 이들도 많다"며 "연리지 등 유명한 나무들이 많은 대흥사이지만 초의선사와의 인연 때문에 대흥매를 사랑하는 방문객들이 많다"고 소개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완도군, '해양치유 관광으로 관광객 천만 시대 열겠다'

30일 해양치유 완도 관광 비전 선포식

완도군은 오는 3월 30일 오후 2시 완도군 생활문화센터에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삶을 선도하는 해양치유 완도 관광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선포식에는 국내 여행사 및 유관 기관 관계자와 인플루언서 및 유튜버 등 전국의 MZ 세대에게 앞서 관광 비전을 선포함으로써 관광 인지도 제고와 경쟁력을 강화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선포식을 마련하게 됐다. 선포식은 국악 앙상블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신우철 완도군수의 '완도 관광' PT, 국내 여행사 및 유관 기관과의 해양치유 완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이 진행된다. 이어 인플루언서, 유튜버, 파워블로거, 관광 사진작가 등 관광 홍보 마케팅을 위한 관광 명예 홍보대사 위촉, 완도군관광발전협회의 지역 관광 활성화 다짐과 참석자 전원이 함께 하는 비전 선포 및 세리머니 등을 할 계획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강진군육아지원센터, '오감발달 놀이교실' 개강

수준 높은 체험미술·체육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강진군육아지원센터(센터장 이수민)는 그동안 야심차게 준비해온 '오감발달 놀이교실'을 3월 21일 개강했다고 밝혔다. 오감발달 놀이교실은 강진군 부모와 자녀들이 문화센터 강좌 이수율 향상을 위해 더 이상 타도시를 방문하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수준 높은 체험미술·체육활동 등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비 1억 1천만 원을 확보해 추진 중인 '이동식 놀이교

실'사업의 일환이다. 주로 보육시설이 부재한 6개 면(대구, 마량, 신전, 작천, 병영, 읍천)의 아동을 위해 면사무소 및 문화센터 등에서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한다. 오감발달 놀이교실에는 6개 면의 아동들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강진읍과 4개면(군동, 칠량, 도암, 성진) 아동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강진군은 여성친화도시와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강진군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3월, 강진군육아지원센터를 사단법인 위스타트에 신규 위탁했다. 오감발달 놀이교실은 위탁 후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위스타트에서 펼칠 사업의 방향과 수준을 가늠케 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강진군육아지원센터 이수민 센터장은 "올해 3월 1일부터 위스타트가 다문화아동 사례관리 업무를 마무리하고 강진군육아지원센터의 이름으로 영유아 양육환경 조성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자녀를 키우는 각

가정에서 만족할만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달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강진군은 육아지원센터를 통해 영유아 복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미 워킹맘·대디를 위해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시간을 저녁 7시까지 연장했으며, 야간돌봄센터는 올해 간식비를 지난 해 대비, 2배 증액한 바 있다. 임준형 군민행복과장은 "전국 최고의 육아수당과 함께 지역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영유아 가정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강진, 아이키우기 좋은 강진'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 국립 '전남 호국원' 유치 최종용역보고회 개최

장흥군은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국립 전남 호국원 유치를 위한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석훈 부군수와 실과소장들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립 전남호국원 유치 관련 영상 시청과 최종 용역보고회를 실시했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기점으로 국가보훈처에 제출할 제안서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장흥군은 앞으로도 국립 호국원 유치를 위한 주민설명회에 돌입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장흥읍, 안양면 이장단, 보림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호국원 유치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호국원 유치를 위하여 지난해 말부터 숨 가쁘게 달려왔다. 각 기관 사회단체와 주민들의 뜻을 모아 장흥군에 호국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김희수 진도군수가 최일선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7급 이하 MZ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20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희수 진도군수, 7급 이하 MZ 공무원들과 소통 행보 고민거리·직장상사들에 대한 배렘 등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 위해

간담회는 직원들과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커피와 과일 등을 함께 먹으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직급, 직렬 등으로 구성된 직원 간담회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라는 소주제로 평소 근무하면서 느꼈던 업무처리 개선방안과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과 조언을 나누었다. 특히 인사문제, 후생복지 건의사항 등은 가급적 자체하고 MZ 세대들의 고민거리, 직장상사들에 대한 배렘 등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 김희수 진도군수는 선배 공무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업무의 노하우와 실제 사례들을 설명했으며, 어려운 여건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공직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낡은 관습을 탈피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 개선 등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이번에 군수님과 직원 간의 자유로운 소통의 기회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